

* 미국

미국 정부, 클린에너지 기술혁신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4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¹⁾

글 : 이상엽 (sylee1@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미 정부는 기후 변화(climate change)에 대한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새로운 클린 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클린 에너지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와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의 투자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 정부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6일에 Clean Energy Investment Summit을 개최하고 기관 투자자와 자선 재단으로부터 4십억 달러(약 4조 5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 받기로 했다. 이번에 유치된 금액은 기후변화 대응기술과 이산화탄소 감량을 위한 기술 개발을 주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4십억 달러라는 액수는 당초 미 정부의 클린에너지 투자 전략에서 목표로 삼았던 2십억 달러를 훨씬 넘는 수치다. 투자 유치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여러 기관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공동투자 부문과 특정 기관의 단독투자로 구분될 수 있다.

공동투자

- 기관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투자: 캘리포니아 대학의 투자 협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클린에너지 관련 혁신 제품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십억 달러가 넘는 펀드를 조성하였다.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캘리포니아 대학 투자 협회, 뉴질랜드 연금 협회, 알래스카 종신 기금 협회, 미국의 교사들을 위한 연금 단체인 TIAA-CREF, 벤처 투자 기업인 Tamarisc 등이 있다.
- 자선 재단들의 공동투자: 기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250개가 넘는 자선 재단들도 클린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예로, 100개 이상의 자선 재단과 패밀리오피스

1) 자료: Ernest Moniz (2015. 6. 16), "Mobilizing \$4 Billion in Private-Sector Support for Homegrown Clean Energy Innovation",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로 구성된 CREO 신디케이트는 지금까지 클린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15억 달러를 투자했고, 향후 5년 간 2십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CREO 신디케이트는 자선 단체인 Confluence Philanthropy와의 협력을 통해 Climate Solutions Collaborative라는 공동 사업을 발표하였다. Confluence Philanthropy는 200여개의 재단으로 구성된 자선 단체이다. Climate Solutions Collaborative는 멤버들에 대한 클린에너지 관련 교육과 투자 정보 제공을 통해 멤버들의 클린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2020년까지 20%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PRIME 연합의 공동 투자: Betsy & Jesse Fink 재단, Blue Haven Initiative, Chesonis Family 재단, Echoing Green, Pritzker 혁신 기금, Stiefel Family 재단 등과 같은 단체로 구성된 PRIME 연합은 비영리 기관으로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자선 목적의 투자 금액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소기술의 초기 개발 단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단독투자

여러 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공동투자 이외에도, 특정 기관이나 업체를 통한 단독투자도 있었다. 예를 들면, 골드만 삭스는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고급 클린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Edward Mother Earth 재단은 클린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3백8십만 달러를 투

자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John Merck 기금 협회와 Meyer Family Enterprises 같은 기관들도 클린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이번 Summit에서 펀드 조성 이외에도 민간 부문의 지속적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하였다.

- 새로운 클린에너지 투자 센터 설립: 미 정부는 환경부 산하에 클린에너지 투자 센터를 설립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또는 클린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민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이외에도 기후변화와 클린 에너지 관련 연구 자료와 기술개발 성과도 민간 투자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 자선 재단으로 부티의 투자 활성화: 미 정부는 재무부(Treasury Department)의 사회투자 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자선 재단이 클린에너지 기술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 클린에너지 기술개발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미 정부는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을 통해서 클린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클린에너지 기술혁신을 위한 연방 정부 지원의 투명성 제고: 미 정부는 클린에너지 기술 혁신과 관련된 연방 정부 자금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 회계연도의 클린 에너지 관련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